



특 집

2005년 양돈산업 주요 과제와 해결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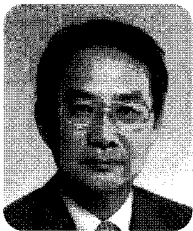
양돈업 등록제와 친환경 직불제의 의의와 발전방향

1. 양돈업 등록제

가. 도입취지

양돈업 등록제는 방역관리 시스템, 친환경 직불제, 이력추진 시스템 등의 효율적 추진으로 양돈업이 한 단계 도약해 선진양돈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등록제는 농가 위치, 사료, 분뇨, 약품, 차량의 출입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가축질병의 예방과 환경오염 감소, 친환경축산 직불제, 이력추적 시스템 등의 도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2002년 12월 26일 개정 축산법에 따라 동법 시행령('03. 12. 30)·시행규칙('04. 2. 14) 및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2005년 12월 26일까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양돈업 등록제는 양돈농가들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소독시설이나 돈분처리시설과 관계없이 현재대로 등록하면 된다.



정 찬 길 교수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본지 편집위원)

나. 추진상황

사육시설면적이 50m²(50두) 초과 양돈농가는 최소 축사면적을 갖추고 해당 시장·군수에게 2005년 12월 26일까지 등록하여 농가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2004년 11월 24일 현재 등록대상농가 39천호의 21.0%인 8,216호가 등록을 하였다. 이중 돼지의 등록대상은 10,262호인데 14.5%인 1,487호만이 등록

〈표 1〉 축산업 등록제 등록 현황(2004. 11. 24 현재)

구 분	한우	젖 소	돼 지	닭	기타(부화, 종축)	계
등록대상(호)	13,950	8,769	10,262	5,507	586	39,074
등록실적(호)	4,537	535	1,487	1,085	572	8,216
비 율(%)	32.5	6.1	14.5	19.7	97.6	21.0



을 마쳤다. 한육우 32.5%, 닭 19.7% 보다는 낮고, 젓소 6.1% 보다는 높다.

앞으로 축산정책은 원칙적으로 등록 농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미등록 농가는 각종 정책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등록했다고 해서 무허가 돈사가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했다고 해서 재산세 등에 양돈농가의 불이익은 없게 되어 있다.

양돈농가들은 대체로 등록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며 무허가 돈사 문제, 돈사건폐율 상향조정, 등록 후 세무적 불이익 등에 부분적인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등록 후 후속 프로그램이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는데 대해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 발전방향

축산업 등록제에 대한 양돈업계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중지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크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후속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면 양돈업 등록은 순조로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참여 기피의 큰 원인은 무허가 돈사가 많은데 있기 때문에 등록 후에 확실한 처리방안과 불이익이 없을 것이란 확신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돈사의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여 허가 범위를 높여주어야 한다. 또한 후속 프로그램을 빨리 제안하여 등록 후 사육두수 제한과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르면 두당 정해진 면적을 따를 경우 감축되는 두수에 대한 보전 현실화가 필요하고, 무허가 돈사의 등록도 직불제의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참여농가에 대해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양돈업 등록제가 양돈농가에게 가해지는 또 하나의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불식되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 사항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반복 실시되어야 한다.

2. 친환경 직불제

가. 도입취지

가축질병 발생, 수입사료 의존, 축산분뇨 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짐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진국형 축산으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환경과 더불어 지속적 가능한 축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정부는 친환경 축산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양돈농가가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축산기반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 이행요건의 기본프로그램은 돼지의 경우 분뇨발생을 감축하고 발생분뇨를 환원하는 것으로 사육밀도를 완화시켜 분뇨발생량의 20~30%를 감축하는 것이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 조경수 등 식재·관리로 환경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친환경축산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추가비용 또는 소득감소분의 50%까지 직불금으로 보전하며, 지원한도액은 호당 1,500만원(기본프로그램



- 등록제는 농가 위치, 사료, 분뇨,약품, 차량의 출입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가축질병의 예방과 환경오염 감소, 친환경축산 직불제, 이력추적 시스템 등의 도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표 2〉 친환경 직불제 참여 현황

구 분	한옥우	젓 소	돼 지	닭	계
목 표(호)	200	300	400	100	1,000
실 적(호)	129	75	215	93	512
비 율(%)	64.5	25.0	53.8	93.0	51.2

이행 1,300만원/호,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200만원/호)이다.

나. 추진상황

2004년부터 1천호를 대상으로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58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보완 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홍보 리후렛, 농업인 홍보, 지자체 및 축협 지도요원 교육실시, 농업전문지·관련단체 등을 통한 홍보실시, 시행요령 작성 배포 및 합동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참여목표 1,000농가의 51.2%인 512농가만이 참여하였는데, 양돈농가는 목표 400농가의 53.8%인 215농가가 참여하였다.

친환경축산 직불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축산 직불제 참여농가 중 우수농가 사례집 발간·배포, 시범사업 현지점검 및 분석·평가를 통해 2005년 지원단가 및 이행요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다. 발전방향

양돈농가의 직불제 시범사업 참여가 목표의 절반에 미칠 정도로 저조한 이유는 사육면적(혹은 두수)을 줄여야 하는 부담이 큰 반면, 이에 따른 소득감소분에 대해서 50%만 보전하는 등 제도상으로 큰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축산 직불제에 대한 홍보부족과 대상농가들의 인식 부족에도 부진의 이유가 있다. 특히 개별

양돈농가가 분뇨환원, 사육밀도 완화, 분뇨발생량 감축, 축사 주변 환경개선 등 친환경 요건들을 갖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양돈농가는 물론 정책자체를 철저히 평가하여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도록 수정보완하고 단기·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시설보완이나 재설치, 소득감소분 보전 등에서 참여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여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직불예산도 확보되어야 한다. 농업예산대비 직불제 비중이 한국 84%('04), 미국 36%('01), EU 70%('01), 일본 13%('01)으로 절대적으로 낮은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의 비중('01)이 8.0%로 미국(35%)과 일본(39%)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불제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홍보와 적응 훈련을 거치면서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연장조치 이전의 특단의 대책으로 참여농가가 근본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망되고, 예컨대 양돈농가가 돼지 10마리를 감축할 경우 지급 금액이 2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여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조경수에 한정하지 말고 축사설계 개선, 분뇨처리 장비구입, 마케팅 지원 등을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행기록부 역시 우리 양돈경영 실정에 합당하게 쉽고 편리하게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이해력을 유발할 수 있는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고, 일본과 같이 인근지역의 채소나 화훼농가와 연계해 돈분을 처리할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양돈**